

『동광』에 비친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 -*

최 옥 채

(전북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동광』이라는 한국 최초의 아동복지 전문지를 통해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발행한 『동광』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내어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에는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신앙에 기반한 시설중심 케이스워크로 드러났다. 둘째,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에는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확대 시기(1970-79)에는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동광』, 아동복지, 사회사 관점,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

1. 문제제기

일제강점에서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비록 국가의 책임보다 외원기관을 포함한 민간에 의존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춘 것은 1950년대 중반쯤이라고 할 수 있겠다.¹⁾ 그렇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유발표세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했음.

1) 이는 장인협(1986: 101)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된 것은 1950년대에서 비롯

게 가정할 때 당시 정부가 펼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시기의 사회복지의 대체로 아동복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²⁾ 이렇게 한국 사회복지의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의 아동복지의 과연 어떤 위상을 갖추어 전개되었을까? 정치적으로 매우 긴박했고³⁾,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피폐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급성장을 이루었으며⁴⁾,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 및 문화적으로 곤궁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때에 전개된 아동복지의 실상이 궁금하다.

한국의 아동복지의 시기에 따라 발전의 양상을 달리 하였는데, 예컨대 1950년대는 응급적 시설수용 중심의 아동구호정책(공계순 외, 2008: 115), 1960년대는 자조근로와 생활보호의 합리화 및 시설로부터 가정중심의 보호(구자현, 1984: 249), 1970년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여성취업인구가 증가하면서 보육사업과 서비스의 확대(오정수·정익중, 2008: 68-69)로 전개되었다.⁵⁾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1970년대까지 아동복지의 1950년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전히 제한적이었고⁶⁾, 1980년대로 넘어와서야 아동복지의 단층을 이룬다는 점이다.⁷⁾ 따라서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1950-70년대의 한국 아동복지의 급팽창한 보호아동을 수용하기조차 힘든 경제적 여건 속에 민간의 활동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며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아동복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⁸⁾ 이런 사정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발전 앞에 두어서라기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여러 방향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아동복지의 전개 상황을 한층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합해 해석할 수 있는 사회사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슨 자료에 근거하여 이 시기 아동복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까? 1950-70년대의 한국 아동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동광』을 들 수 있다. 뒤에 소상히 정

된다.”고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 2) 1960년에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은 472개로 전체 592개 사회복지시설의 약 80%를 차지하였다(오정수·정익중, 2008: 67).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아동복지협회는 1952년 제1회 사회사업가대회에서 창립된 한국사회사업연합회의 근원이다(한국아동복지협회, 2016).
- 3) 1954년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총선의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 1956년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와 함께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과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김영호, 2011: 201).
- 4) 1953년에 제1차 화폐개혁 시행, 전후 물가폭등, 1958년부터 미국의 경제난으로 한국에의 경제원조 급감(다할편집실 편, 2008: 457-463)들에서도 당시의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5) 한편 김현용(1997: 35)은 1950년대의 국내외입양사업, 1960-70년대의 탁아사업을 강조하였다.
- 6) 예컨대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국민복지증진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구자현, 1984: 249), 여전히 외원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심으로 선별적이었고(장인협·오정수, 1993: 101),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어서야 모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삼았다(성영혜, 1984: 44).
- 7) 실제로 1980년대에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와 함께 사회복지에 비롯한 아동복지의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였고(이영환·김영순, 2001: 268), 이 시기에 문화산업과 대중소비문화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이광호, 2009: 409).
- 8) 정주영(1997: 224)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앞세우고 사회복지에 뒷전으로 밀어냄으로써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주목할 정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리하겠지만 『동광』은 기독교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s Fund) 한국연합회⁹⁾가 1957년부터 발행한 아동복지 전문지로서 당시의 사회복지에 물론 아동복지에 중점을 두어 논문과 잡문을 실어 소개하였다. 특히 이 내용들은 그 시절의 아동복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국가 구성체 측면에서 이해하고, 나아가 그때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상을 파악케 한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¹⁰⁾

이 연구의 목적은 『동광』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여명기라고도 할 수 있는 1950-70년대에 전개된 아동복지의 상황을 사회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¹¹⁾ 특히 사회사 측면에서 이 시기에 펼쳐진 아동복지의 실상을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이해의 입체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비록 기독교와 시설이라는 당시 아동복지의 특정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지만 반세기 이전의 상황을 통찰하며 독자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아서이다.¹²⁾

2. 문헌고찰

문헌고찰에서는 이 연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동광』을 소개하고, 1950-7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동광』에 관한 이해

어린이빛[童光, Children's Light]이라는 아동복지 전문지 『동광』은 1957년 1월에 창간되었다. 당시 기독교아동복지회의 내쉬(Ernest T. Nash) 한국 지부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를,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에 가입한 시설의 원장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잡지를 원함으로써 이들의 절충안을 마련하여 『동광』을 발행하였다(이연형, 2013: 49). 첫 해에 5회, 이후에는 매년 많게는 4회, 적게는 1회 발행되었고,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것은 재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잡지의 처음 발행은 1953년에 아동시설을 회원 삼아 결성된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가 맡았고¹³⁾, 1980년에 어린이재단으로 바뀌어 지금은 연간 1회 아동복지 관련 논문만을 실어 발행되고 있

9) 이 연합회는 한국에 원조사업을 펼친 CCF가 1955년에 재단법인 재한기독교아동복지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것이다(차윤근, 1986: 42).

10) 당시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케 하는 전문 자료로 『동광』과 『계간 사회복지』가 유일한데 후자는 주로 연구논문에 치중함으로써 전자와는 구별된다.

11) 이와 같은 사회사 관점의 필요성은, 예컨대 “아동의 국내입양이 더딘 것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라야 유교사상에 의한 혈통중심의 가치관이 내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권오구, 1982: 8)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은 반성적인 시간의 경과를 요청한다.”(이명원, 2013: 24)는 점에 근거해서이다.

13) 이 연합회의 규모는 날로 커져 1967년에는 전국에 12,000여 명의 아동을 거느리는 110개 시설로 확장되었다(은영기, 1967: 5).

다. 1981년까지의 『동광』에는 논문 이외에도 좌담회, 칼럼, 상담실 운영, 소식란, 전문서적 소개, 수필, 사고(社告) 등이 실려 당시의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데 유익하다고 하겠다.¹⁴⁾ 편집체제는 국관으로 초기에는 세로 2-3단이었던 것이 1975년부터 가로 2단으로 변형되었다. 분량은 많게는 140쪽(제1권 3호, 1957년 6월 발행), 적게는 35쪽(통권60호, 1972년 9월 발행)에 달하고, 지금은 200여 쪽 안팎의 사륙배판으로 바뀌어 아동복지 관련 연구지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전문 잡지로 1955년에 창간된 계간 『사회복지』를 꼽는데, 이 잡지는 1966년에서야 『대한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속간되면서 간행물로 등록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편찬위원회, 2012: 244-245). 특히 초기의 『사회복지』는 잡지라기보다는 소식지의 체제로 발행되었음을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57년에 등록과 함께 잡지의 체제를 갖추어 발행된 『동광』과 『사회복지』의 선후 역사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2) 1950-70년대의 한국 사회상

이 연구가 사회사 관점으로 1950-70년대의 아동복지를 조망하고 있어 이 시기의 사회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당시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제도에 중점을 두어 이와 관련된 사회상을 결합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세 시기로 구분해 짧게 살펴보겠다.

첫째,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되었으나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특히 1950년대 정치 상황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남한의 안보를 위해 맺은 한미동맹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¹⁵⁾ 물론 경제 사정 역시 몹시 피폐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⁶⁾ 아울러 한국전쟁을 마친 상황에서는 학문적으로 불모상태여서 일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¹⁷⁾ 요컨대 1950년대는 한국 자체의 사회복지제도보다 미국의 원조에 더 의지하였다.

둘째,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와 아동복지가 함께 대두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동복지의 규모를 생각하면 사회복지에서 아동복지만을 떼어 따로 볼 수 있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다.¹⁸⁾ 군사정권이 대체로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고 하지만 한일회담을

14) 실제로 '아동문제의 사회성'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제6권 4호, 1962년 12월), 김만두의 상담 '반항하는 어린이'(제7권 2호, 1963년 6월), 이명홍의 칼럼 '아동복지사업과 가정의 위치'(제7권 3호, 1963년 9월), 사고의 표어 '번영위한 내핍생활 너도나도 앞장서자 한 톨 쌀도 허비 말고 자급자족 빨리 하자'(제8권 2호, 1964년 6월), 강만춘의 칼럼 '사회사업가의 윤리문제'(제7권 1호, 1963년 3월), 김덕준의 논단 '가족복지사업에 대한 소고'(제16권 1호, 1972년 3월) 등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15)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미동맹으로 오늘에 이르고,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안 한반도 지역안보의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우태, 2014: 22).

16) 전쟁 폐허를 달리는 미군의 지프차를 쫓으며 그들이 아량을 베풀 듯 던져주는 초콜릿과 껌을 구걸하던 아이들 또한 미국의 상업 문화의 개척자들 가운데 하나였다(최은봉 역, 2014: 162-163).

17) 실제로 195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계는 그 역사가 불모 상태였고 독자적인 연구 업적이 취약했기 때문에 대체로 번역서와 외국의 학문에 의존하였고, 이 당시의 학문 전반은 일본 학문과 서구 학문을 통해 공부한 정도였다(김병익, 2005: 294).

반대하는 시위는 4·19를 방불케 하였다(장평순, 1998b: 26). 한편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네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고, 1964년에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했으며 1968년에 제1회 무역박람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경제적 성장을 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셋째,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절대빈곤과 함께 불안정했던 사회가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서서히 안정되었다.¹⁹⁾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논란은 있지만 농촌에서 주민의 리더십이 제기되었고(엄석진, 2011: 459), 도시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이 있었다. 1976년에 매일 말일에 반상회를 실시했고, 1978년에는 장거리 자동공중전화가 개통되었다. 당시 각박했던 사회상을 가족계획, 취로사업, 밀가루 배급, 영세민들과 같은 용어로부터 가늠할 수 있겠다.²⁰⁾

3) 선행연구 검토

굳이 1950-70년대로 시기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연구 논문은 흔치 않고, 저술이나 잡지에서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다음과 같이 네 방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겠다.²¹⁾

첫째, 연구논문으로 해방 이후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다룬 이혜경(199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응급자선적 아동보호정책단계,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외원에서 탈피하지 못한 잔여적 아동복지정책기,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새로운 발전적 통합적 아동복지정책의 모색기로 구분했고, 이 기간 아동복지정책은 성장제일주의의 아동복지정책에 그쳤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송주미·성영혜(1999)가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여 한국 아동복지관(兒童福祉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²²⁾

둘째,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학 연구자가 저술한 ‘아동복지론’ 교과서의 내용을 들 수 있

18) 예컨대 한국 아동복지학의 선구자로 일컫는 주정일이 미국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1967-69년에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며 아동복지에 박차를 가하였다(중앙일보, 2014b).

19) 그런가 하면 부의 편중이 시작되었고, 유신독재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정치의 요구가 강했는데(김치수, 1991: 65), 이는 전성태(2010: 50)도 강조한 바처럼 1960년대 보릿고개 세대를 거쳐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위시한 근대화 세대가 맞이한 것이다.

20) 1961년에 창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1971년에 ‘돌남기운동’을 실시했고, 1968년에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저소득층의 근로구호로 취로사업이 널리 펼쳐졌다.

21) 어쨌든 이들 자료에 나타난 당시 한국 아동복지의 특성으로, 1) 해방이후 보호아동의 급증과 해외 입양을 포함한 정부의 선별적 대응, 2) 외원기관과 민간으로부터 정부에 아동복지사업의 점진적 이동을 강조할 수 있다.

22) 이 논문은 송주미가 1996에 박사학위논문으로 낸 것을 요약한 것이고, 그래서 1996년까지의 아동복지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다. 이들 교과서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한적이지만 여기에서 당시 아동복지의 사회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김중대(1983), 장인협(1984), 성영혜(1984) 교수가 교과서를 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장인협·오정수(1999)가 시기를 구분하여 한국 아동복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셋째,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문헌으로 한국어린이재단이 발행한 『CCF 38년사』(차윤근, 198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 발행한 『아동복지편람』(정주영, 1997)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앞의 교과서에서보다 더 상세한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발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다양한 측면을 엮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체 사회복지 70년사에서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을 다룬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70년사』(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015)가 최근에 발행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정책의 태동기(1945-60년), 기반조성기(1961-80년), 확충기(1981-99년), 발전기(2000년 이후)로 구분, 정리하였다.²³⁾

넷째, 1991년에 창립된 한국아동복지학회의 학술대회 자료집과 학술지를 강조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은 비록 1950-70년대는 아니지만 한국 아동복지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룸으로써 발행 전후의 한국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²⁴⁾ 특히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은 아동복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실상은 최근 우경연(2013: 12)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 관련법이 노동, 교육, 범죄, 건강, 문화, 보호와 같이 복잡하게 분류된다고 하듯, 아동복지가 사회의 다양한 맥락에서 관여되어야 함을 통찰케 한다.

앞에 정리한 저술과 연구의 선행문헌은 1950-70년대 한국의 아동복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문헌은 당시의 사회적 역동 속에서 한국의 아동복지가 전개되어 온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1950-70년대의 아동복지가 외원과 함께 사회복지의 주류를 이룬 것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무슨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깃들여 있는 동기나 의도를 비롯한 함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3) 이와 같은 시기의 구분은 이 연구가 1950-70년대의 아동복지에 주목하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겠다.

24) 낱말이 참고문헌을 달아 언급할 수는 없지만 1992-99년에 한국아동복지학회가 학술대회나 학술지에서 다룬 주요 주제로 아동학대(허남순·윤혜미), 입양(성민선·배태순), 시설보호(김현용), 아동상담(노혜련), 보육사업(임중운), 가정위탁사업(이배근), 아동권리(조홍식), 아동윤락(김재엽), 해체 가정아동(이혜원·박현선) 등이 있었다.

3. 연구방법

1) 사회사 관점

사회사는 전체 맥락에서 사회의 역동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최옥채, 2013: 291), 그 현상을 역사학에 근거하여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성을 지닌다(김필동, 1995: 16). 이런 면에서 사회사는 대체로 역사학이 국가사(민족), 제도사(정치), 경제사(사회), 사상사(사건)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상을 종합하기도 하며 잡다한 세목(細目)의 기록과 현장에 대한 치밀한 재현을 통해 사실감과 현장감을 환기하는 강점이 있다(김병익, 2005: 282-283). 이는 마치 제도처럼 큰 틀 안에서 실천이 서로 맥을 함께하며 실천의 바닥에 깔린 미세한 것을 찾아내어 제도에 피드백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회사의 특성은 이미 선행연구(최옥채, 2013; 최옥채·黑木保博, 2014)에 소개된 바와 같이 한국의 1950-70년대와 같은 특정 시기의 현상을 맥락적으로 조망하여 여러 주제를 잡아내고,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사 관점이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며 당시 한국 사회복지의 한 단면을 살피는 데 적합할 것으로 본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 활용한 주된 자료는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가 1957년부터 1979년까지 총 74호를 발행한 아동복지 전문지 『동광』이다. 이 잡지에 수록된 발간사를 비롯하여 당시 대학교 교수와 현장의 관료 및 실무자들이 기고한 논단, 연합회가 주관한 좌담회, 시설의 종사자와 아동이 투고한 수기와 문학작품 등을 근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²⁵⁾ 이외에도 당시의 아동복지는 물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논문, 저술, 신문의 조각자료 등을 찾아 반영하였다.²⁶⁾ 한편 자료는 1950-70년대 기간을 아동의 구호 및 시설보호에 중점을 둔 시설중심구호 시기(1957-61년),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복지의 여명기라 할 수 있는 가정중심보호 시기(1962-69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과 함께 아동복지가 체계화된 서비스확대 시기(1970-79년)로 구분, 수집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미 앞에서 이들 시기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한 점, 실제로 기존 문헌들도 이와 비슷하게 시기를 구분한 점들을 반영한 것이다.²⁷⁾ 아울러 앞 호에서 이미 수집된 개념과 같거나 비슷한 이후의 호의

25) 당시의 『동광』을 결권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6) 예컨대 중앙일보 '부고란'에서 주정일 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한국 아동복지의 선구자로 일컬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7) 『아동복지법』이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에 시행된 점, 1970년에 『사회복지사

것은 생략하였다. 세 시기에 따라 발행된 『동광』의 차례에서 총 265개의 개념을 추출했는데, 그 시기별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자료 수집 상황

시기	발행 호수	개념 수	주요 개념
시설중심 구호	1-17호	80개	시설 아동의 직업교육(1) 시설 출신 아동의 직업알선과 보호(2) 케이스워크의 의의(4) 구세군의 사회복지 활동(10) 아동복지사업에 기독교 적용(14)
가정중심 보호	18-49호	120개	시설수용 아동의 사후조치(18) 원아의 정신분석적 연구(19) 보육시설의 카운슬링 방향(22) 집단사회사업과 성격교육(23) 시설직원 현임훈련[실습]의 지도방법(26) 시설 아동의 증가를 막는 길(28) 육아시설과 지역사회(28) 감각기능의 발달을 돕는 놀이(46)
서비스확대	50-74호	65개	수용 아동의 지능검사(52) 새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보육(54) 육아원의 당면 문제와 연장아동 진출대책(65) 80년대를 향한 아동복지사업(69) 아동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72) 심신장애아 시설복지의 전문화 대책(73)

주요 개념의 괄호 안은 『동광』의 호수를 표시함.

2) 자료 분석과 해석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하며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각 시기의 개념을 반복해 살펴봄으로써 주제를 형성하고, 이들 주제는 상식선에서 아동복지가 형성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배치하였다. 아울러 이 주제들의 배치는 세 시기의 사정에 따라 조정하였다. 예컨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중심구호 시기의 개념들에서 ‘케이스워크의 의의’가 ‘구세군의 사회복지활동’보다 먼저 나오지만 <표 2>에서 보는 주제들과 같이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을 ‘시설 내 케이스워크의 적용’ 앞에 두었다. 나아가 가정중심보호 시기의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는 가정중심보호 시기뿐만 아니라 서비스확대 시기에서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였지만 서비스확대 시기에는 유형별 아동의 문제가 새로운 탈시설화와 함께 강조되어 가정중심보호 시기에 배치하였다.

둘째, 시기별로 형성된 주제를 『동광』에 실린 자료는 물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업법』이 시행된 점, 앞에 언급한 이해경(1992: 248)의 시기 구분을 참고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는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예컨대 시설중심구호 시기의 주제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을 사회사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먼저 『동광』의 자료를 최대로 활용하고, 여기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나 문학비평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였다.

셋째, 세 시기의 주제를 통합, 기술하였다. 이 통합기술은 전체 내용을 재문맥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이 작업을 통해 주제를 서로 조정함으로써 사회사 관점에 한층 더 충실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아서이다.

3) 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

엄격하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분석까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동광』의 전 호를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재단을 직접 오가며 기본 자료를 수집했고, 연구 중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원자료를 확인하였다.

둘째, 원자료에 의문이 들 경우 당시 관련했던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원로를 직접 만나 확인하였다. 실제로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의 관련인을 면접했고, 『동광』에 익숙한 어린이재단의 실무자로부터 조언을 받았다.²⁸⁾

셋째, 원자료로부터 만들어낸 주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속자료에 근거하기 위한 작업을 충실히 하였다. 예컨대 1979년 이후에 발행된 『동광』뿐만 아니라 단행본, 연구논문, 신문기사에서도 1950-70년대 아동복지 관련 자료를 찾아 활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서 그 시기의 기사와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4. 1950-70년대 한국 아동복지의 전개

총 74호에 걸친 『동광』에서 이끌어낸 265개 개념에 근거하여 1950-70년대에 전개된 한국의 아동복지를 정리하였다. 앞에 언급한 바처럼 시설중심구호, 가정중심보호, 서비스확대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개념들로부터 형성한 주제를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아울러 이 세 시기의 내용을 '아동복지와 겹친 사회복지 되돌아보기'라는 통합 주제로 잡아 기술하였다. 먼저 이들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28) 2014년 12월 24일 대전의 천양원을 방문하여 이연형 원장을 면접했고, 2013-4년에 서울의 어린이재단 산하 아동복지연구소와 연구위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논의하였다.

〈표 2〉 시기에 따른 주제와 통합 주제

시기	주제	통합 주제
시설중심구호 (1957-1961)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아동복지와 접친 사회복지 되돌아보기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시설 내 케이스워크의 적용	
가정중심보호 (1962-1969)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서비스확대 (1970-1979)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탈시설화의 거론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정부의 소극적 대응	

1) 시설중심구호 시기

이 시기에는 앞에 언급한 바처럼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주류를 이루었고, 1961년에는 615개로까지 늘어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구호사업에 치중하였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편찬위원회, 2012: 112). 전후 복구와 절대빈곤을 맞이한 상황에서 『동광』을 통해 본 아동복지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주제를 잡아내어 해석하였다.

(1) 사회편견 속의 고아양육

이 시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고아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였다. 사회편견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 현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선입견으로서 현실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인데, 사태현(1957)의 ‘시설 아동의 취학문제’와 김득봉(1957)의 ‘시설 아동의 취업문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는 당시의 강한 반공의식으로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후 전쟁체험을 통해 더욱 강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에는 반대급부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강조하는 의식이 깔려있었다(최유찬, 1991: 13). 이런 상황은 『동광』 창간호의 판권란에 표기된 ‘우리의 맹세’와 이후의 여러 호에 실린 ‘혁명공약’이나 ‘범국민운동대강’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맹세’에는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혁명공약’에는 “반공을 국시의 제 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범국민운동대강’에는 “용공, 중립주의를 배격하자” 라는 구호가 만연한 상황에서 아동시설 측은 고아를 양육하는 데 물질적인 어려움 위에 심리적인 압박까지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고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사회진출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동시설의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다(유상열, 1960).

(2) 외원과 기독교에 치우친 사회사업

1950년대 한국에서의 아동복지는 상당 부분이 외원과 기독교에 의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

었다. 이는 당시의 외원단체 가운데 많게는 75%가 선교단체였다는 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최원규, 1996: 231).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난 외원기관은 기독교아동복지회 이외에도 10여개 나라에서 들어온 외원기관들이 주한 외국인간원조단체연합회(KAVA)를 조직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을 주도하였고(조휘일 외, 2008: 24), 이들 기관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하고 있었다.²⁹⁾ 이런 상황은 196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예컨대 김형태(1969: 6)는 육아시설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였고, 셸리 프레즐러(1969: 5)는 시설에서 아동을 위한 성경 공과 교수법을 소개하였다.³⁰⁾ 정부는 1963년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이 단체의 활동을 독려했고, 보건사회부보다 예산이 많을 때가 있어 '제2의 보사부'로 불리기도 했다(한겨레, 2015). 한편 1950년대 중반부터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원조는 자연스럽게 구미로부터 서구문화의 유입을 가속화시켰다(이명원, 2013: 286). 한편 윤고성(1960: 27)은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사회사업의 이해를 분명히 하였다. 즉 사회정책은 노동문제의 기본 부분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인데 비해 사회사업은 자본주의 제도가 불러일으킨 제도의 여러 결함 중 노동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정책에서 파생된 복지의 침해상태에 대응하는 공사의 대책이라고 했다.

(3) 시설 내 케이스워크의 적용

1945년 해방과 1950년대 한국전쟁의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많은 전쟁고아들이 발생하였고, 이는 아동복지가 시설수용 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강동욱·문영희, 2011: 70). 여기에 기독교 중심의 아동시설 연합회가 결성되어 아동복지를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바탕으로 시설중심의 사회사업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케이스워크가 아동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에 의해 적용되었는데, 당시 케이스워크에 관한 이해는 명확했다. 예컨대 양친회에 근무하는 한영희(1957: 64)는 케이스워크를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인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도와주는 각종 방법의 일”이라고 하였다.³¹⁾ 이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의 김남수(1957: 65)도 “사회사업의 과학적인 기술로서 보호를 받을 어린이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개별적인 생활지도”라고 소개하였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케이스워크가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방법 중에서 우선하여 아동복지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시설중심의 아동후호 및 아동보호는 유교가 강조해온 가족중심의 보호로부터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이와 같은 실천의 흐름은 결국 시설중심에서의 실천이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로

29) 당시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잡아당기면 가루우유가 나오고, 장로님을 잡아당기면 강냉이 가루 나온다.”(장평순, 1998a: 111)고 즐겨 불렀던 노래에서도 엿볼 수 있다.

30) 프레즐러(Shirly Preszler)는 감리교 선교사로서 당시 부산의 한국 감리교단에서 크리스천 교육을 담당하였다.

31) 이와 같은 그녀의 설명은 한미재단이 발행한 『아동복지』라는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아 이미 아동복지 관련 저술이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기독교아동복지회는 한국에서 유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던 가족중심의 아동보호를 시설중심의 아동보호로 이어갔다는 점을 밝히면서 1963년부터 가능하면 아동의 거택보호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였다(하스테틀러, 1963).

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가정중심보호 시기

이 시기에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의 정책이 가정중심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전문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아동의 시설구호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독교아동복지회는 가정복지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1963년에 개설한 아펜셀러어린이회를 통해 직접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것이 사회복지관의 모체가 되었다(차운근, 1986: 93-95). 특히 『아동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사회가 안정을 이루었는데, 이 시기에 전개된 아동복지 관련 주제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내어 해석하였다.

(1) 사회복지 전반을 고민하며 제도화의 발돋움

『동광』에 기고한 사람들의 글을 통해 당시 아동복지를 주도하거나 관련했던 이들은 사회복지의 전반을 고민하며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강만춘(1961)이 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빌어 한국의 사회사업 관련법을 논의하였고, 김득봉(1961)이 사회사업 관련인들이 견지해야 할 태도로 충실한 아동시설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구자현(1961)이 아동복지의 상세한 시책으로 아동시설에서의 교육과 위생, 김기운(1961)은 생활환경 자체가 열악한 농촌에서의 사회사업이 나아갈 근본책으로써 실천가의 훈련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 『동광』의 편집실은 미국(제5권 1-2호), 필리핀(제5권 2호), 일본(제6권 1-2호)과 같은 해외의 상황을 알리며 한국 아동복지의 제도화에 협력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더불어 1962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은 「생활보호법」과 함께 앞에 언급한 보호아동의 상황을 반영하였고, 이전의 시설중심 보호에 국한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62년에 제3공화국의 개정헌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생활보호법」의 시행과 4차에 걸쳐 단행한 화폐계획과 같은 정치경제의 실상이 뒷받침했다고 하겠다.³³⁾

(2) 사회사업의 전문성 대두

아동복지 현장에서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1963)의 제정과 함께 사회사업의 전문성이 대두하였다. 이는 아동문제가 떠오르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양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고아의 증가, 사회인의 그릇된 인식, 시설아동의 일탈, 국민의 책임회피 등이 대두하였다(이진삼, 1968). 특히 시설아동의 비행화가 거론되었는데, 권순영(1963: 30)은 반사회적 이상 인격이 발달된 고아원 출신의 비행소년이 증가한다고 밝혔다.³⁴⁾ 이와 같은 주장에는 아동을 보육하는 시

33) 실제로 1961년부터 계획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짠 경제기획원이 ‘딛어놓고 냅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가족계획을 주도하였다(중앙일보, 2015).

34) 그는 당시 서울지방법원 소년부지원장으로서 이 문헌에서 “고아원이 비행소년의 양성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설이 발전적으로 변화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속출하는 기아와 부랑아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³⁵⁾

특히 사회사업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사업의 철학적 모색(노창섭, 1963), 입양사업에서의 케이스워크 서비스(김명우, 1963), 집단사회사업을 통한 성격교육(조규선, 1963), 인간관계 훈련(정희경, 1963a) 등이 소개되었다. 아동을 위한 실천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이 강조된 것이다. 나아가 사회사업가의 윤리(강만춘, 1963a; 김만두, 1963), 보육시설에서의 상담(정희경, 1963b)과 여가지도(조효섭, 1963), 지역사회사업가(Community Organizer)의 역할(김덕준, 1963) 등이 강조되었다.³⁶⁾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동복지의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강만춘(1963b: 25)은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탄탄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사업지도자의 세대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3) 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과제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동복지는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전개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직업교육과 종사자의 처우가 쟁점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퇴소하여 취업활동을 지속해야 함에도 아예 합당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연장고아의 수가 증가하는 처지였다(장규식, 1966: 4).³⁷⁾ 한편 시설 종사자의 자질은 아동의 상태에 비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자현(1964)은 시설직원을 위한 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는 데 중점을 두되 교육할 자료와 준비상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당시 아동시설 직원들에게 대학교 학력까지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아동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훈련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백근철·이신복(1963: 11)은 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과 한국적 사회사업의 창조적 주체성을 논의했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⁸⁾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의 한국 사회복지실천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영아원 보모의 문제점으로 이들의 자질과 처우가 거론되었고(최승석, 1968),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지도원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권장하였다.³⁹⁾

35) 이와 관련하여 김만두(1964)는 병원의 사회사업반에 근무하며 여성의 빈곤, 미혼, 가족관계 들로 버려지는 아동을 소개하였고, 김영수(1966: 11)는 부랑아의 실태를 1962에 5,842명, 1963년에 5,679명, 1964년에 7,027명이라고 보고하였다.

36) 김덕준은 이미 1958년(『동광』 제2권 2호, 제3권 1호)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을 소개하며, 이의 개념과 필요성 및 방법을 다루었다.

37) 특히 장규식(1966: 6-8)은 전국의 직업보도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아동이 1,363명에 불과하고, 취업한 아동에게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38) 예컨대 김학복(1964)은 서간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 유래의 차이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모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9)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과 입산부에 관하여 그의 가족 및 관계인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유급 케이스워커이고, 아동위원은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지도원과 협력하는 무급 케이스워커이다(한이윤, 1963: 11-13).

(4) 아동을 위한 실천의 통합화 기대

단순히 아동에만 한계지는 아동복지가 아니라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처지에서 현장은 통합적 실천을 기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권이 대두한 것 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가정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를 만족치 못할 경우 이와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보충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이명홍, 1963: 16). 이런 주장은 앞서가는 외국의 현실을 빌어 아동의 권리를 바라는 분위기 속에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가족복지로까지 확대되어 가야 함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그런가 하면 아동의 시설보호를 평가하는 가운데 시설보호 이외의 위탁가정보호와 같은 거택보호사업이 추진되었고(윤흥, 1965: 11),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지부가 1964년에 고아의 증가를 막는 한 가지 방안으로 탁아사업을 처음 실시하였다(하수철, 1965). 실제로 위탁보호사업은 대한양연회가 1961년에 근대 사회사업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처음 실시하였다(이부자, 1964: 34). 이와 같은 사정은 지역사회사업과 연계된 아동복지실천의 통합화로까지 이끌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실상을 미루어볼 때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통합화는 일찍이 아동복지에서 거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서비스확대 시기

이 시기에는 여전히 외원에 의존하면서 관민이 아동복지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예컨대 보건사회부와 KAVA가 협력하여 '새로운 한국-새로운 KAVA'라는 표어를 내세워 연차대회를 실시하였다(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1995: 142). 전체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된 시기임에도 외원의 철수를 대비하는 가운데 아동복지의 새로운 면모를 시도했지만 경제가 성장한 만큼 당장의 결과는 내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추출, 해석하였다.

(1) 아동의 교육 및 보건 강화

아동복지의 서비스확대 시기를 맞이하여 아동의 교육과 보건의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시설 운영의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사회복지사업법』(1970)이 제정되어 아동복지제도가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유아의 지성교육에 따른 피아제의 새 이론인 '발생론적 인식론'이 제시되고(노원혜, 1970), 어린이가 일상에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극 놀이가 소개되었으며(홍재훈, 1970), 시설의 아동에게 지능검사가 실시되었다(전용신, 1970). 이는 아동시설에서의 적지 않은 변화라고 하겠다. 한편 아동의 보건을 위해 환경위생과 환절기 안전을 위한 방안이 강조되었고(이예숙, 1971), 아동에게 닥칠 수 있는 정신장애를 예방 및 경감시킬 수 있는 소아정신위생이 소개되었다(임영숙, 1971).

40) 1962년에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아동의 복리 보장이 명기되었고, 『동광』에는 “입시지옥으로부터 어린이를 해방하라!”(이원교, 1966)는 구호가 있었다.

이처럼 아동시설의 운영이 강화되면서 시설운영의 평가가 대두했는데, 이는 외원기관이 주도하여 아동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미국에서 온 기독교아동복지회의 조정관은 통속적인 관념에 빠진 육아원에 관한 낡은 생각들을 버리라고 강조하였다(송윤구 역, 1974: 1). 물론 이는 지금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경향을 띠었다. 즉 당시에는 외원기관이 아동시설의 충실한 운영에 목표를 두어 전반적인 운영의 실태를 평가했고, 이에 따른 시설운영의 성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⁴¹⁾

(2) 탈시설화의 거론

아동복지에서의 탈시설화는 계속 제기되어 왔던 아동문제로부터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에 의해 아동복지제도가 한걸음 더 체계화됨으로써 발전적 측면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앞선 시기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 시기에서는 한층 구체화되어, 불우아동(최종도, 1975), 비행청소년(이상로, 1976), 근로청소년(이상로, 1978), 심신장애아동(민은식, 1978)이 나타났다. 여기에 탈시설화와 아동상담소 운영의 강화가 대두되었는데(홍종옥, 1977: 7), 실제로 정부는 1976년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탈시설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요구하였는데, 예컨대 성교육(고흥화, 1973), 아동미술(김정, 1979), 지역사회자원 동원(김용일, 1977), 사회복지요원 훈련(이정호, 1977)들이 『동광』을 통해 강조되었다. 특별히 사회복지요원의 훈련과 관련해서는 1957년에 설립된 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이 1960년에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을 거쳐 1977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정부가 한층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의 훈련을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원기관의 철수 대비

사회개발이 부상하며 사회복지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원기관들은 철수를 준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관의 한계가 속속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경제성장을 이루어감에도 정부가 여전히 사회복지에 투자보다는 경제개발에의 재투자를 더욱 강화했던 것을 반박했고(권오구, 1977), 정부는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1970)을 비롯하여 아동복지와 밀접한 『모자보건법』(1973)과 『국민복지연금법』(1973) 등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이 외원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했고(이태영, 1975: 23), 외원기관이 철수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중에 정부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앞장서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 종교기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은, 특별히 재정적인 면에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실상은, 예컨대 1971년 6월에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가 처음으로 자선바자회를 실시한 점(안음전, 197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런 형편은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처럼 모금활동과 같은 새로운 사회복지실천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국가가 이런 경제성장이 아동복지와 같은 영역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하겠다. 어쨌든 기독교아동복지회가 미국으로의 철수를 연기함으로써 민간에서는 시설의 가정화된 제도(소가족제도-그룹홈, 보육교사의 자질, 아동의 급

41) 평가의 필요성에는 시설운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영향을 미친 점도 있고(김영자, 1972: 7), 평가의 성과는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 이연형 회장이 연구자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식과 영양을 강조할 수 있었다(박완숙, 1973).

(4) 정부의 소극적 대응

아동복지의 확장과 함께 사회복지가 여러 영역으로 점차 분화하면서 정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아동복지에는 관심을 덜 쏟았다. 이는 정치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선거철에 양성화되었다가 헐리는 무허가 판잣집의 고달픈 삶”(김치수, 1991: 159)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 간 이기주의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1960년대에 시작된 탁아사업이 1970년대에 확대되면서 내무부로 흡수되고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칭시킨 점과 같은 중앙정부의 부처 간 알력이 있었다(김현용, 1997: 35). 이런 저간의 사정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관료의 폐습’이라고 하겠다. 당시 어려운 처지의 주부들은 비누짜가리 몇 장에 흘러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김소진, 2002: 209), 사회는 “공업화와 근대화로 기능 제일주의를 신봉함으로써”(김치수, 1991: 152) 인격보다는 기술을, 복지보다는 경제를 앞세웠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세워 아동보다는 군대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이런 모습은 『아동복지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직전의 아동복지가 더디게 전개되어 가는 실상을 들여다보게 한다. 외원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개발에 우선했던 것인데, 이는 정부가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동복지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4) 아동복지와 겹친 사회복지 되돌아보기

『동광』을 통해 본 1950-70년대의 한국 사회복지의 아동복지로 변주되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아동복지가 곧 사회복지를 이루었다. 더욱이 여기에 소개된 내용 중에는 지금의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처지를 들춰냄으로써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를 다시 읽는 듯, 당시의 주장이나 논의 내용은 엄중하였다.⁴²⁾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중에 가속화한 1950년대 한국의 아동복지는 전쟁고아를 주요 대상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국민 대부분이 적빈에 빠지자 독지가는 쫓겨 사회사업의 실천가로 무장하였고(명완식, 1954), 외국에서 들어온 40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지원했다(카바40년 사편찬위원회, 1995). 아울러 갓 창설된 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 교수가 동참했으며, 정부는 1952년에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살아내자!’는 구호가 난무한 사회 분위기에 당시 아동복지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것처럼 정부보다는 외원을 비롯한 민간이 협력해 일궈졌다. 아동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된 보호사업은 고아에 대한 골 깊은 사회편견으로 쉽지 않았고, 대체로 기독교 신앙에 연유한 케이스워크가 아동복지실천의 실낱같은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1960년대의 아동복지는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갔

42) 이 시기에 몰락한 농민이 도시로 몰리는 사회병리현상의 심각성과 함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농촌사회사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김기윤, 1961: 37-38).

다. 「아동복지법」과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로 아동복지의 제도적 근간을 이룬 상황에서 외원기관의 활동은 한층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아동을 위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아동과 시설을 이끌어갈 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문제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필요악’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시설에 ‘연장고아’가 많아져 운영을 힘들게 한 데에는 시설의 운영보다는 사회에 뛰어난 아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이 더 컸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교육을 형편이 충분치 않은 대학교에만 맡길 수 없음에도 정부는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더욱 기대되었고, 아동복지를 위한 실천의 통합화가 대두하였다. 아동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 비록 어려운 처지라고 하지만 아동에게 가족의 필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천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동복지가 지역사회실천과 함께 가족복지에로까지 확대된 사회복지실천의 통합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산업화의 드센 바람과 함께 1970년대의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제도로써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3개 사회복지서비스법(「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규정한 것이 그 초석이 되었다.⁴³⁾ 경제발전을 이루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주장하며 외원으로부터 사회복지의 자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의 정부나 국민이 짊어주는 우선순위에 들지 못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연탄가게’, ‘새마을(담배)’, ‘중동현장’, ‘가족계획’과 같은 말이 돌던 시절에(진정석, 2002: 264) 아동복지의 영역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의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이 활발해진 것에 비해 더디게 전개되었고, 아동복지와 정부 양측이 서로 불협화음을 가져오기도 했다.⁴⁴⁾ 정부는 아동시설에 재정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했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아동복지 현장을 방치하는 수준이었다.

1950-70년대의 한국 아동복지의 미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신앙에 기반한 외원기관과 함께 민간의 주도아래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의 가치와 상치되기도 했고, 시설아동의 변화를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케이스워크가 엄히 적용되며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의 전개 과정은 한국의 실정에 합당한 주체적인 실천을 소망하며 진행되기도 했다. 아동복지가 자리를 잡아가며 아동과 그의 가정을 겨냥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했고, 결국 가족복지의 산실이 되었다. 한국 아동복지의 1세대는 정부의 경제개발중심 정책과 관료의 폐습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며 ‘복지사회 구현’을 내건 1980년대의 아동복지 2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이때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까지 열어가며 한국 아동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었던 외원기관들이 돌아가는 무렵이었다.

43)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개별법의 총칙으로서 역할을 했고,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어 방대해졌다(박석돈 외, 2009: 43).

44) 1962년에 정부는 아동시설 측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연고 아동의 귀가 운동을 펼쳐 시설 측과 마찰이 있었다(김득봉, 1962: 15).

5. 논의와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 전문지인 『동광』의 내용을 바탕으로 1950-70년대 아동복지의 실상을 세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이 잡지를 통해 당시의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하며 전개되어 온 내력을 시기별로 사회사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의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논의하였다.

첫째, 아동복지가 초기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축으로서 가족복지의 발전과 사회복지실천의 통합화를 이끌었다.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초석이 된 상황은 지금 한국의 대규모 사회복지법인이 해외사업을 펼치며 아동에 치중하고 있는 실상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고아를 시설에 수용하여 케이스워크라는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기반으로 보육했고, 실천의 영역을 넓혀 가정의 아동을 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아동복지의 목표와 방법을 확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아동복지의 목적을 가족복지에까지 확대 설정하고, 방법으로는 지역사회실천을 적용해 나아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아동복지가 확대되면서 가족복지라는 분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이뿐만 아니라 단조롭게 진행되었던 케이스워크에서 지역사회실천으로 확대되어 실내에서만 아니라 옥외의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의 현장은 지역사회개발 수준에 머물렀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외원기관에 의한 실천 방법이나 기술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통합실천이 아동복지 현장에서 나타났고, 이 통합화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아우러져 다양한 수준의 체계에서 폭넓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일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외원기관을 포함한 민간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모금활동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창안하며 전개되었다. 정부는 제2공화국(1960-61)에 이르기까지 사회부가 사회사업을 허가하면서 고아원과 같은 후생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쳤다.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때에 급증한 고아를 상대로 정부는 해외입양을 적극 권장했고, 민간은 아동시설이 난무하게 운영되는 데 일조했고, 민간에서도 외원기관 측은 불성실한 시설을 경계하며 이 기관들이 충실히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비록 『동광』이라는 잡지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당시 아동복지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주류를 이루었는데, 특히 이런 상황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⁴⁶⁾ 아울러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아동시설에서의 실천이 이후 실천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기독교를 내세워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45) 실제로 김덕준(1972: 11)은 가족복지사업의 기능으로 송치(의뢰), 조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46) 예컨대 태화사회관이나 한국선명회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중심의 가정보호사업이나 가정개발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덕주, 1993: 479-482; 민경배, 2001: 365).

아동시설의 허실을 한층 더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현장에서는 충실한 실천을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와 전략적으로 임하며 아동복지의 발전을 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 현장이 여러 영역의 전문 인력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꾸려졌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대학교의 교수, 아동시설의 실무자, 정부의 관료,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해 아동을 보육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특히 시설의 실무자 중에서도 열의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룬 이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이연형(1976)이 보육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아동의 야뇨증을 고친 사례를 들어 논문으로 낸 것은 그의 충실한 실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 현장이 관료와 소통하는 것 역시 전략적이었다고 하겠다. 예컨대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이 『동광』(제20권 2호, 1977년 12월 발행)의 신년사를 쓴 것은 이 잡지를 발행하는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와 정부가 밀접히 연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당시의 이런 상황은 각 지방정부의 조직에서 아동복지 담당 실무자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아동복지 현장과 밀접히 관련하며 사회복지사의 기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엿보게 한다.⁴⁷⁾

넷째, 구호가 앞서면서 제도의 내실보다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전시성이 더하여져 전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정치경제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에 우선 투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어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는 1970년대에 경제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아동복지가 발전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으로 남아 있게 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즉 경제발전을 여유롭게 이룬 것이 아니고 안간힘을 쓰고, 때로는 ‘반공 방첩’의 시기에 희생도 아끼지 않으며 성취한 것이라 쉽게 사회복지에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정부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사회복지가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1970년대에 제정된 다수의 사회복지법은 도시빈민문제, 노동자문제, 소득불평등문제와 함께 정치적 갈등 속에 대거 제정되었다(현외성, 2007: 57). 아울러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의 기반이 되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이나 『국민복지연금법』(1973)들을 시행하지 않아 전시적이었던 점에서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에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앞서 출발한 아동복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사회복지가 당리당략으로 전략되어 그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아동복지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표가 되는 무상교육에는 관심이 많고, 그렇지 않은 아동학대나 아동양육시설은 뒷전으로 물리고 있다(중앙일보, 2014a). 결국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당시의 아동복지 영역에 합당한 몫의 재정을 할애하지 않았다.

다섯째, 다소간 시설운영자의 나태함과 관료의 폐습이 당시의 아동복지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정은 아동복지에의 정치적인 악영향을 피하는 데도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고, 나아가 시설 종사자가 온전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47) 시군구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970년대 말부터 부녀·아동직으로 있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년에 사회복지직으로 통합되었다.

수 있다. 나태한 운영자는 자신의 치부 때문에 아동복지를 소홀히 하려는 정치권에 정당히 대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합당한 처우를 위해 정부 및 관료에게 적극 요구하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충실히 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나 관료에게 아동복지기관 측이 의당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에 인색했다는 것은 정부가 아동시설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려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를 대대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⁴⁸⁾ 결국 아동복지가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적으로 강하게 호소하지 못했고, 이와 같은 일련의 입장은 정치권이 아동복지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맥락과도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상을 다루는 것이 피차 난처한 점도 있겠지만 “전사(前史)를 언급하지 않고 개혁의 논의는 빈말에 불과하다.”(김홍우, 1999: 726)는 점에서 아동복지의 앞선 사실은 낱말이 드러나야 하고, 이를 위해 운영자와 관료가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다. 덧붙여 연구자들의 인일함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1960년대부터 한국에 합당한 아동복지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점과 관련하여 지금의 아동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을 돌아보아야 하겠다. 놀랍게도 50여 년 전에 고민했던 것을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어 당시의 주장을 지금 교훈삼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비록 기독교중심의 아동복지시설에 치우친 자료에 근거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 1950-70년대의 아동복지가 당시 사회복지의 주축을 이루며 통합적 접근을 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외원기관을 포함한 민간이 앞장섰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매우 한정된 정책에 그쳤음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강동욱·문영희, 2011, 『아동학대: 법과 제도』, 서울: 청목출판사.
- 강만춘, 1961, “사회사업법에 대한 소고”, 『동광』 5(1): 26-34.
- 강만춘, 1963a, “사회사업가의 윤리문제: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동광』 7(1): 18-22.
- 강만춘, 1963b, “사회사업과 세대교체적부론”, 『동광』 7(4): 22-26(36).
-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2008, 『아동복지론』(3판), 서울: 학지사.
- 구자현, 1961, “아동복지시책 제언”, 『동광』 5(1): 20-25.
- 구자현, 1964, “시설직원현직훈련의 지도방법”, 『동광』 8(1): 29-35(42).
- 구자현, 1984, 『한국사회복지사』(재판), 서울: 홍익재.
- 권순영, 1963b, “보육원아와 비행소년”, 『동광』 7(1): 29-31(37).
- 권오구, 1977, “국가발전과 사회개발: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중심으로”, 『동광』 20(2): 28-35.

48) 1955년에 8,000명이었던 시설 아동의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1960년에 12,5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정부는 입소 아동 수를 제한하고 해외입양을 권장하였다(하스테틀러, 1963: 5).

- 권오구, 1982, “아동복지사상의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황”, 『동광』 79: 4-17.
- 고흥화, 1973, “아동기에 있어서의 성교육”, 『동광』 17(1): 10-17.
- 김남수, 1957, “케-스 워크의 의의”, 『동광』 1(4): 65-66.
- 김기운, 1961, “우리나라 농촌사회사업의 근본책”, 『동광』 5(1): 36-40.
- 김덕준, 1963, “지역사회조직사업가의 일은 무엇인가(하)”, 『동광』 7(1): 12-19.
- 김덕준, 1972, “가족복지사업에 대한 소고”, 『동광』 16(1): 8-14.
- 김득봉, 1957, “시설출신 고아의 직업간섭과 보호문제”, 『동광』 1(2): 20-25.
- 김득봉, 1961, “사회사업과 우리의 태도”, 『동광』 5(1): 14-19.
- 김득봉, 1962, “시설수용아동의 사후조치문제”, 『동광』 6(1): 14-20.
- 김만두, 1963, “사회사업가의 윤리적 규정(미국편 소개)”, 『동광』 7(1): 23-28.
- 김만두, 1964, “기아의 주변: 병원사회사업실을 통해본”, 『동광』 8(2): 27-33.
- 김명우, 1963, “양연사업과 ‘케이스 워 썬-비스’”, 『동광』 7(2): 48-53.
- 김병익, 2005, 『그래도 문학이 있어야 할 이유』,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소진, 2002, 『장석조네 사람들』, 경기 파주: 문학동네.
- 김영수, 1966, “부랑아의 실태와 사회의 무관심”, 『동광』 10(1): 10-15.
- 김영자, 1972, “아동복지의 방향”, 『동광』 16(2): 5-10.
- 김영호, 2011, 『한국사연표사전』, 서울: 문예마당.
- 김용일, 1977, “아동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활용방안”, 『동광』 20(2): 10-16.
- 김정, 1979, “어린이 그림은 무엇인가?”, 『동광』 74: 34-39.
- 김중대, 1988, 『아동복지론』(개정판), 서울: 형설출판사.
- 김치수, 1991,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필동, 1995, “서장 ‘한국 사회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용하·박명규·김필동 편, 『한국 사회사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3-38.
- 김학묵, 1964, “R형에게 드리는 글”, 『동광』 8(2): 5-9.
- 김현용, 1997, “제1부 사회 변화와 아동복지”, 김현용·윤현숙·노혜련·김연옥·최균·이배근, 『현대 사회와 아동』, 서울: 소화, 11-81.
- 김형태, 1969, “육아시설에서의 기독교 교육”, 『동광』 13(3): 6-11.
- 김홍우, 1999, 『현상학과 정치철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노원혜, 1970, “유아의 지성 교육: 피아제 박사의 새 이론”, 『동광』 14(1): 21-26.
- 노창섭, 1963, “한국사회사업의 철학적 모색과 그 문제점”, 『동광』 7(3): 7-11.
- 다할편집실 편, 2008, 『한국사연표』(개정판), 서울: 다할미디어.
- 민경배, 2001, 『월드비전 한국 50년운동사(1950-2000)』, 서울: 흥익재.
- 민은식, 1978, “심신장애아 시설복지의 전문화 대책”, 『동광』 73: 16-21.
- 박석돈 외, 2009, 『사회복지법제론』, 경기 파주: 양서원.
- 박원숙, 1973, “당면한 난제들에 대하여”, 『동광』 17(4): 8-12.
- 백근칠·이신복, 1963, “가정 및 아동복지종사자 훈련회의참관기”, 『동광』 7(1): 7-11.
-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015, 『보건복지 70년사』, 세종시: 보건복지부.
- 사태현, 1957, “시설아동과 취학문제”, 『동광』 1(1): 16-18.
- 성영혜, 1984, 『아동복지론』, 서울: 학문사.
- 셜리 프래즐러, 1969, “어린이 성경 공과 교수법”, 『동광』 13(4): 5-12.

- 송윤구 역, 1974, 『육아원에 관한 낡은 생각들』, George C. Doepp, Popular Myths about Children's Homes, 기독교 아동복지회 한국지부.
- 송주미·성영혜, 1999, “한국 아동복지관의 변천과정 연구: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2): 1-25.
- 안음전, 1971, “제1회 자선바자회를 마련하면서”, 『동광』 15(1): 3-4.
- 엄석진, 2011,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재조명: ‘좋은 거버넌스’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7-485.
- 오정수·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우경연, 2013, 『아동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5: 1-101.
- 유상열, 1960, “연장자사회 진출 문제”, 『동광』 4(2): 11-16(10).
- 윤고성, 1960, “사회정책과 사회사업”, 『동광』 14(3): 27-29.
- 윤흠, 1965, “외원의 어제와 오늘: 아동복리를 중심으로”, 『동광』 9(1): 6-12.
- 은영기, 1967, “창간 10주년을 기념함”, 『동광』 11(1): 5-8.
- 이광호, 2009, 『익명의 사랑』,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덕주, 1993,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1921-1993)』,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이명원, 2013, 『타는 혀』(개정판), 서울: 새움출판사.
- 이명홍, 1963, “아동복지사업과 가정의 위치”, 『동광』 7(3): 12-16.
- 이부자, 1964, “위탁보육사업의 현황”, 『동광』 8(2): 34-39.
- 이상로, 1976, “한국의 기능인력수급과 비행청소년문제”, 『동광』 20(1): 10-18.
- 이상로, 1978, “근로청소년의 보호 및 대책”, 『동광』 73: 8-15.
- 이연형, 1976, “시설아동 오줌싸개(夜尿症)에 관한 소고”, 『동광』 20(1): 43-50.
- 이연형, 2013,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 60년사』, 대전: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
- 이영환·김영순, 2001,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대한 계급정치적 고찰”, 『상황과 복지』 9: 249-302.
- 이예숙, 1971, “아동시설에 있어서의 환경위생 및 환절기 안전”, 『동광』 15(1): 19-23.
- 이우태, 2014, “한미동맹과 한반도 통일”,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21-29.
- 이원교, 1966, “입시지옥으로부터 어린이를 해방하라”, 『동광』 10(3): 12-17.
- 이정호, 1977, “사회복지요원훈련에 관한 소고”, 『동광』 71호: 14-24.
- 이진삼, 1968, “기독교 아동복지회 산하 시설의 아동 양육에 대한 문제점”, 『동광』 12(4): 11-17.
- 이태영, 1975, “80년대를 향한 아동복지사업”, 『동광』 19(2): 23-27.
- 이혜경, 1992, “경제성장과 아동복지: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변용을 중심으로”, 『신학논단』 20: 247-278.
- 임영숙, 1971, “소아정신위생”, 『동광』 15(4): 30-34.
- 장규식, 1966,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동광』 10(1): 4-9.
- 장인협, 1986,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인협·오정수, 1999, 『아동·청소년복지론』(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평순, 1998a, 『눈으로 보는 한국역사16』, 서울: (주)교원.
- 장평순, 1998b, 『눈으로 보는 한국역사17』, 서울: (주)교원.
- 전성태, 2010, 『전성태가 주운 이야기. 성태 망태 부리붕대』, 서울: 좋은생각.
- 전용신, 1970, “수용 아동에 대한 지능검사: 고대-비네 검사를 중심으로”, 『동광』 14(3): 10-15.
- 정주영, 1997, 『아동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정희경, 1963a, “보육시설의 인간관계: 어린이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동광』 7(2): 40-44.

- 정희경, 1963b, “보육시설에 있어서의 카운슬링의 방향”, 『동광』 7(1): 32-37.
- 조규선, 1963, “집단사회사업과 성격교육”, 『동광』 7(2): 34-39.
- 조효섭, 1963, “시설아동을 위한 여가지도: ‘놀이’의 발달심리”, 『동광』 7(1): 38-42.
- 조휘일·김선희·권순미·김정희·최원희, 2008,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서현사.
- 진정석, 2002, “지속되는 삶,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263-274.
- 차윤근, 1986, 『CCF 38년사: 사랑은 국경을 넘어』, 서울: 한국어린이재단.
- 최승석, 1968, “영아원 보모의 문젯점”, 『동광』 12(2): 4-8.
- 최옥채, 2013, “일제강점기 농민복지: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2): 287-311.
- 최옥채·黒木保博, 2014, “『월간복지』에 비친 일본 ‘사회복지’의 변천: ‘자선’에서 ‘사회복지’까지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203-229.
- 최원규, 1996,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유찬, 1991, “1950년대 비평연구”, 한국문학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연구』, 서울: 평민사.
- 최은봉 역, 2014, 『근대 일본』(신판), Ian Buruma, 2004, *Inventing Japan: 1853-1964*, 서울: 을유문화사.
- 최종도, 1975, “불우아동을 위한 결연사업: 지역사회자원 동원문제에 관련하여”, 『동광』 19(2): 32-38.
- 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1995, 『외원사회사업기관활동사: 외국인간 원조기관 한국연합회 40년사』, 서울: 홍익재.
- 하수철, 1965, “탁아사업을 펴면서”, 『동광』 8(3): 21-22.
- 하스테틀러, 1963, “거택구호사업을 시작하면서: CCF 사업의 일환으로”, 『동광』 7(1): 4-6.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편찬위원회, 2012,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영희, 1957, “「케이스·워-크」를 말함”, 『동광』 1(3): 64-69.
- 한이윤, 1963, “아동복지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지역활동”, 『동광』 7(4): 10-16.
- 현외성, 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경기 고양: 공동체.
- 홍재훈, 1970, “어린이 연극 놀이 지도”, 『동광』 14(4): 34-40.
- 홍선미·최명민, 2010, “사회복지교육 실태진단 및 사회복지교육의 질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11: 1-31.
- 홍종욱, 1977, “아동복지정책”, 『동광』 20(1): 4-13.
- 동아일보, 1954, “한국사회사업개관: 구각 탈피책을 검하여”, 1954년 10월 17일(칼럼/논단).
- 중앙일보, 2014a, “표 되는 무상보육만 관심 ... 표 안되는 보육원은 뒷전”, 2014년 10월 10일.
- 중앙일보, 2014b, “한국 아동복지학 선구자 주정일씨”, 2014년 12월 4일.
- 중앙일보, 2015, “저출산, 최경환 부총리가 총대 메라”, 2015년 3월 16일.
- 한겨레, 2015, “빈곤 시절의 상징 ‘이국 원조 단체법’ 52년 만에 폐지”, 2015년 2월 12일.
- 한국아동복지협회, 2016, “한국아동복지협회 연혁”, <http://www.adongbokji.or.kr>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hild Welfare
between 1950s and 1970s in the Light of Children's Light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ocial History -**

Choi, Ok 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development of Korean child welfare between 1950s and 1970s in the light of Children's Light as the oldest profess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journal had been published by CCF Superintendent Korea Conference from 1957. Particularl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social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three periods, institution-centered care era(1957-1961), home-centered care era(1962-1969), and expanded services era(1970-1979). Finally, the resultant themes are as follows: firstly, orphans' foster under social prejudice, social work inclined to Christianity, and institution-centered social casework based on faith; secondly, development of systematization on the whole social welfare, rising of social work professionalism, tasks for orphans and workers in orphanages, and expectations on the integration of practice; and thirdly, strengthening of children's education and health in the institution, question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preparation against withdrawal of foreign aid agencies, and the government's passive correspondence. Unfortunately, this study limits to reveal the children's services by non-Christian agencies because of the data based on the services by Christian agencies.

Key words: Children's Light, Child Welfare, Perspective of Social History, Christian Children's Fund Superintendent Korea Conference

[논문 접수일 : 16. 09. 28, 심사일 : 16. 10. 24, 게재 확정일 : 16. 11. 28]